

[서평]

『(정신건강과 자아발달을 돕는) 체험적 독서치료』



김 수 경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skyoungkim@pusan.ac.kr

최 근 독서와 더불어 독서치료의 열기가 뜨겁다. 특히 2007년 도서관계는 굵직굵직한 변화들로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맞았다. 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재정비와 아울러 많은 기반 연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참여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방안 연구’에서도 독서치료의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기본은 도서관의 장서, 시설, 인적 구성을 활용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선 사서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다.

도서관에는 여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자관의 형편에 맞게 개설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되고 있었지만, 지역의 타 문화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기가 힘들어 보였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타 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독서만한 프로그램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서들은 도서관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꼽았다. 더구나 독서치료를 자관의



한국도서관협회 독서문화위원회 편

김정근, 한윤옥, 황금숙, 김순화, 신주영, 김현애 공저.
서울 : 학지사, 2007. 573p.
ISBN: 9788958915614 93180

특화 사업으로 삼은 도서관들도 여럿 있었으며, 대개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독서치료 목록생산, 독서치료 자료코너 별치 운영, 홈페이지 내 독서치료 안내 코너 운영 등을 하는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김정근 교수가 어느 글에서 언급한 대로 독서치료는 도서관의 건강식단 위에 특식으로서 도서관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블루 오션 품목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몇몇 사서들과의 인터뷰에서 독서치료가 도서관 서비스의 블루 오션 품목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떻게 접근할 지는 난감해하였다. 기존 도서관의 많은 프로그램들처럼 독서치료에 관한 강의형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만나기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곤란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치유와 변화의 ‘체험’이 중심이 되는 ‘체험형’ 독서치료에 대비하여, 독서치료에 관한 지식과 기법, 이론 중심의 강의형 프로그램을 ‘지식형’ 독서치료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체험형으로 꾸릴 수 있을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체험형으로 꾸리는 데 걸잡이가 될 책 2권이 2007년에는 생산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신건강과 자아발달을 돕는) 체험적 독서치료』이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건강과 자아발달을 돕기 위함’이다. 독서치료는 대상, 치료자, 환경, 자료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독서치료의 대상에 의해 두 갈래, 즉 임상적 독서치료와 발달적 독서치료로 구분한다. 전자는 주로 이미 정신적 행동적 문제

가 심각하게 발생한 대상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이다. 사서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정신보건 전문가의 주도하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반면, 후자는 생활 속 상처를 지닌 정상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교육적 목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발달과제를 안고 있으며, 생활 속 상처로 힘들어하는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 혹은 사회복지의 개입이 필요한 특정 상황에 놓인 이들이 주 대상이다. 발달적 독서치료는 마음의 상처에 관심이 있는 사서, 교사, 종교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약간의 훈련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 책은 발달적 독서치료를 체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기획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의 기획은 처음에 도서관 기반, 사서 주도, 지역주민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내용을 일반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도서관은 물론 사회복지기관, 사찰, 교회, 성당과 같이 인간 치유에 관심이 있는 조직이나 같은 관심을 가진 개인 또는 모임이 참고하고 활용하면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내용적으로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뉘며,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1부에 해당한다. 1부는 ‘체험적 독서치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2000년 들어 독서치료를 발견하여 문헌정보학계에 독서치료의 실천의 장을 연 김정근(책 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통상 책정연으로 줄여 씀)

지도교수, 부산대 명예교수)이 몇 년 동안 발표한 칼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칼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조건, 처지와 출판환경이 고려된 한국적 독서치료 이론이라고 할만하다.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독서치료의 역사도 보인다.

두 번째 부분은 2부에 해당한다. 2부는 '나의 독서치료 체험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10명의 부산대 책정연 회원들의 독서치료 체험기를 싣고 있다. 체험적 독서치료는 치유서를 직접 읽는 중에 자신의 아픈 마음을 돌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체험기는 각자가 치유서를 읽으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돌보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독서치료의 첫사랑 고해서라고 할 수도 있다. 독서치료에 관한 또 다른 치유서를 읽는 기분을 준다.

세 번째 부분은 3, 4, 5, 6부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독서치료의 핵심 요소인 매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성인, 교사와 학부모, 청소년,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자아발달을 돕는 독서목록이 상황별로 소개되어 있다. 독서치료에서는 이용자의 심리적, 발달적 상황과 사회적 처지가 고려된 상황별 목록이 유용하다. 한국도서관협회 독서문화위원회(현 위원장 황금숙 교수, 2006년까지는 한운옥 교수가 위원장)에서는 독서치료가 미칠 중요성을 깨닫고 독서치료의 기초자료인 상황별 독서목록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한국도서관협회 독서문화위원회에서 생산한 보고서가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성인편』(2004),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청소년·어

린이편』(2005),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증보편』(2007)이다. 이 세 보고서는 발간 당시 일선 도서관 현장에 모두 배포되었다. 『체험적 독서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3,4,5,6부는 이 세 보고서를 하나로 엮은 것이다.

2007년에 생산된 또 다른 체험형 독서치료 길잡이 책으로 『독서치료 사례연구』(김정근 외, 한울)가 있다. 독서치료에서 '체험'의 요소, 20대 여성의 상처 문제와 결부하여 개인에게 적용된 독서치료의 의미, 주부 대상 그룹테라피 진행과정과 그 참여자들에게 적용된 의미, 조직 단위에서 울산남부도서관에 독서치료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 기반, 사서주도,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독서치료에 관한 지식전달 중심의 '지식형' 독서치료는 곤란하며, 변화와 치유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독서치료가 도서관형 독서치료에는 적합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게 되었다. 부디 『체험적 독서치료』가 독서치료 체험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다양한 독서치료의 체험 사례가 쏟아지길 바란다. 